
2022년 제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1. 14. ~ 1. 2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1. 14.	시청률	0.069

【총 평】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WHO는 “백신 미접종자는 오미크론에 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안정적임을 소개해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했다.

‘2022 코리아그랜드 세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 축제이다. 올해는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의 인기로 힘입어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온라인 강의까지도 연계해 K-문화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관광 활성화와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 진단했는데, 한국형 관광 축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알뜰신잡’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문의할 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전화번호, 은행까지 안내해 큰 도움이 되었다.

【구성 및 내용】

전세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오미크론이 확산돼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5차 대유행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14일부터 처방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관광과 한류를 결합한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11년째가 되었다. 국내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다. 한국은 겨울에 관광을 즐기는데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해 항공사, 교통, 쇼핑, 숙박과 식음료, 미용과 건강 체험 등 겨울에 즐길 수 있는 한국 여행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이다.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직접적인 대면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는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쇼핑 관광 플랫폼(www.koreagrandsale.co.kr)을 개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1조 2천 53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카드사를 통한 할인을 비롯해 숙박과 항공권 등의 할인 그리고 면세점 할인 등 적극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개막과 동시에 K-pop 공연이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역사 강좌와 문화 강좌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통해서 궁금한 점 등 다양한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2. 1. 14.	시청률	0.152

【총 평】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며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뛰어났다. 특히 정부합동브리핑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조치 연장, 홍남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침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신속하게 알아본 현장성이 돋보였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설 연휴를 2주 앞둔 시점에서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비대면 명절 보내기를 권고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코로나19의 사회현상과 풍속도를 소개한 S&NEWS가 눈길을 끌었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등과 관련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시의적절 했다. 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의 대화를 통해 2022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알아보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인재양성 혁신교육 대전환 등 당면 현안을 진단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방역조치 연장·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델타와 오미크론 두 가지에 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며, 확진자 억제와 의료대응 체계를 확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증화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고, 경증화 환자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재택치료 중 증상이 나빠지는 환자를 위한 환자이송체계나 대면치료센터 확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방안과 병원 내 감염 등에 대한 지침 변경을 주장했다. S&News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을 비롯해 늘어난 지폐 유통 수명, 남녀 소비패턴 등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이 기존 '쓰레기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뀌고, 플라스틱과 다른 재질이 섞인 포장용기는 재활용이 불가하며,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도 8mm→12mm로 커졌다. 지폐 유통 수명은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5만원권은 4개월, 1만원권은 1개월, 5천원권은 3개월, 1천원권은 1개월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별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여성은 디지털 가전, 남성은 먹거리와 취미생활 분야에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2. 1. 14.	시청률	0.024

【총 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최대 6명',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자율·책임 중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시작 등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배치해 집중력을 높였다. 특히 먹는 치료제 처방과 관련, 자세하게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 체계 개편 등 방역 체계 전반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홍남기 부총리가 초과 세수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 주 안에 편성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 모임 '최대 6명'과 관련 설 연휴를 고려해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고 그 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는 전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개편해 단계별로 방침을 세웠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진료체계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시작했다. 2만1천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전국 281곳의 약국과 9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배송되어 정부가 정한 우선 투약 대상자에게 투약된다. 23개 종류의 병용금지 성분이 있으므로 치료제를 처방받기 전에 의료진에 알려야 한다. 정부 방역 지침이 비과학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방역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지금의 오미크론 파고도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내일 중동 3개국 순방에 동행하지 말고,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를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통해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1. 15.	시청률	0.007

【총 평】

“우리는 조금 늦게 철들기로 했습니다.”는 춘향전의 배경지인 광한루원이 위치해 있는 전라북도 남원으로 귀촌해 SNS로 소통하며 독특하게 살고 있는 놀룩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싶다는 부부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텃밭도 가꾸며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개척해 나가고 있다. 부부는 “내 눈치 그만 보고 제대로 놀아보자”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부부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남들이 주는 눈치에 따라 자신의 삶을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또 휴일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간식을 들고 이웃 할머니댁을 찾아가 여러 할머니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가족 이상의 따뜻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으로 귀촌한 지 4년째를 맞은 부부는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 살고 싶은 집으로 꿈꿨던 집에서 아내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싶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동시에 내려왔다. 본래는 소심하고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남들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눈치 보며 살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당히 하면서 살자는 생각에 의기투합한 부부는 노래도 춤도 낯선 시골을 선택해 귀촌했다. 예사롭지 않은 옷차림과 시골 마을에서의 낯선 버스킹에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는 공연이 끝나면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특히 낯은 시골 농가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고 주변 시선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주인공들의 일상이 특별했다.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 통장 잔고가 13만 원임에도 행복하다는 주인공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 세상을 향해 당당하다는 그들의 주장의 원천은 무엇일까? 낯은 시골 농가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고 주변 시선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주인공들의 일상이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

부부는 이 집의 매력과 이 동네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활용해 멋진 동영상을 찍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살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시골에 와서도 바쁘게 살았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조도 하고 공연도 하며, 그리고 글도 쓰고 텃밭도 가꾸었다. 또 춤을 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SNS에 올렸다. 이 많은 일이 돈벌이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조금 배고프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남편은 “지금 시골에 있는 이유는 제 몸과 마음과 제 상황에 시골이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로 굉장히 애를 쓰거나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 몸과 마음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꼭 자기 몸과 마음을 고려한 선택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1. 16.	시청률	0.007

【총 평】

‘친북’은 북한의 제1순위 국가사업인 코로나 비상방역사업이 통제위주에서 선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따른 북한 개방 초읽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내용이 주목도를 높였다.

‘이슈 텔링’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겨울철 시의성을 살려 폭설에 대한 추억과 남북 전통놀이를 살펴본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 동계 스포츠 교류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 기획이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새해 들어 북한이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의 겨울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봉쇄 완화 국면에 따른 남북의 변화, 북한의 천혜 환경과 한국의 기술 장비를 살려 한반도 겨울 스포츠 교류와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해보는 기획이 탁월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2022년 북한의 제1주력사업이 코로나19 비상방역이라고 전하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해 전했다. 북한은 1월 1일 코로나19 예방조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뮤지컬을 선보였는데 네덜란드 방송사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북한에 코로나 감염자는 없다고 했지만, 감염 예방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해 초부터 코로나 19 예방조치 뮤지컬을 방영한 것은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을 국가 제1 순위 사업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민적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제가 너무 강요되고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간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백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은 자체 생산이나 혹은 외부에서 받아와야 할 것이다. 이에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백신 도입을 원활하게 하여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경봉쇄를 푸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봉쇄가 유지되었다. 올 상반기 내 개방의 가능성은 있지만 올 1월 내 개방은 중국 국경의 움직임을 볼 때 힘들어 보인다. 다만 2월에 있을 설과 광명성절을 앞두고 물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겨울철 놀이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한의 추운 겨울은 눈이 많아, 눈을 활용한 이색 놀이들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장마에 비가 오듯 북한은 겨울 내내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 이에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북한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쌓인 눈으로 진지를 구축해서 전투 놀이 눈싸움을 즐기며 추위를 이겨낸다. 콩과 강냉이를 높은 열에 볶아 만든 간식과 밤이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상황에서 겨울스포츠와 북한의 겨울을 묶어 살펴본 것이 시의적절 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1. 16.	시청률	0.000

【총 평】

‘호주 순방 그 후 - 핵심광물 공급망, K9 자주포 수출계약’편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순방에서 이뤄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K9 자주포 수출 계약의 의미와 성과,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 꼭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해 일부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는데 기여했으며, 외교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정홍보 순기능을 살렸다. 이밖에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요 다변화가 시급하고 그 해결책으로 호주를 방문하게 된 점, 세일즈 외교로 K9 자주포 수출 길을 개척한 점 등 외교적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호주 순방 일정의 시의성을 고려할 때 메시지 전달력이 저하된 감이 없지 않다.

【구성 및 내용】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호주와 우리나라의 특별한 관계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풀어낸 구성이 돋보였다. 2021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를 국빈 방문하여 캔버라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만찬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호주는 2년 연속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을 폐쇄했던 호주가 맞이하는 첫 번째 정상이다.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으로 니켈, 희토류 등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공급 리스크가 큰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시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 호주는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호주 국빈방문에서도 호주기업인들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양국 기업간의 협력기회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방문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호주의 희토류 광물을 수입을 가능케 하는 공급망을 확보해주었다. 이를 통해 희토류 광물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한 방산수출에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한 것이 수출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짚어 준 점이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 의미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K-9 자주포는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이다. 호주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에는 헨츠맨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헨츠맨은 힘이 좋고 큰 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자주포의 호주 수출을 통해 영연방 국가에 대한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외유성이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호주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잘 구성해 시청자 이해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2. 1. 20.	시청률	0.015

【총 평】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비롯해 수요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사항, 광주아파트 붕괴사고를 통해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등 시의성 있는 이슈를 심층 진단하고 그 의미를 집중 분석한 기획이 뛰어났다.

특히 주말부터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에 따라 대응방안을 긴급진단하고 설 특별 방역대책 등 정부의 대응 방침을 상세히 알아본 구성이 돋보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6박8일 중동 3개국 순방에 맞춰 순방의 필요성과 의미, 외교 성과,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다.

【구성 및 내용】

오미크론 우세종과 관련하여 국내 코로나19 현황, 오미크론 대응, 설 특별 방역대책, 방역패스 해제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PICK & PICK에서는 인권위의 위안부 문제 고발 관련 수요시위 보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짚어보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과 관련, 순방의 의미와 일정, 각 국가별 주요 사안 등에 대해 전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PCR 검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며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검사부터 치료까지 정부 중심의 대응에서 지역사회, 일반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백신접종을 끝내올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는 수요시위는 3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강성극우보수단체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어, 인권위는 반대단체에게 다른 장소에서 집회하고 명예훼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피해자 측의 처벌을 요청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권고했다. 작년 6월 광주에서 철거공사현장 사고가 있었고 9명이 사망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1일 광주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두 건설사 모두 동일 건설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3개국 순방에서 UAE와 4조 원대 천궁2 수출계약을 성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세자가 추진하는 600조 규모 네옴시티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방산과 군사기술 협력에 미래 전력적인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